

박창수 전남대 총장당선자 사퇴 표명

박창수(59·의대) 전남대학교 총장 당선자(1순위 추천후보)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박 당선자는 지난 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총장 선거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지지자와 참모들이 처벌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자는 또 11일 인수위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대학이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학이 조속히 정상



화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시 인수위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대학의 리더십이 공백기를 맞을 수 있고, 현재 총장 선임 문제 및 직선제 방향 결정 등 현안이 시급한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고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박 당선자의 입장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당선자는 13일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12일 박 교수가 혐의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위 추천자인 이병택(55·공대) 교수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관철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하며 추천된 총장 후보자들 모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 동료 교수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교육공무원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직접 하거나 측근에게 지시하는 등 수십가지 범죄사실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기 총장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심속 백로떼 12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천초등학교 앞 한나루 군락지에 백로와 왜가리, 해오라기 등 여름 철새 300여 마리가 한데 모여 여름을 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위기의 전남대

리더십도 위상도 흔들

교육부 중요 평가 앞두고 우왕좌왕

총장 선거 수사로 촉발된 전남대의 위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각종 평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학 행정을 이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무대책이다. '호남 거점대학으로서 위상을 되찾느냐', '3류 대학으로 전락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전남대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기획물을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탈락엔 7년간 연구비 못 받을수도 핵심요건 '총장직선 폐지' 논란만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는 8월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결정되고,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 대학이 선정된다. 이 두 가지 평가가 끝난 뒤, 내년 초에는 향후 7년간 대학의 연구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평가가 이어진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경우 지난해 타 대학 사례에 비추면, 신입생 외면에 따른 우수 인재 격감과 미달 사태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구조개혁 대상이 되면 입학 정원이 20% 줄고, 각종 행정·재정적 제재는 물론 500억원 가량의 예산 삭감마저 우려돼 대학의

위상은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 초엔 기존의 BK21(두뇌한국)과 WCU(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을 하나로 묶은 '글로벌 EXCEL'이라는 초대형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글로벌 엑셀은 대학원의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BK21', 연구역량 강화 및 우수 해외학자 영입이 목적인 'WCU'를 종합한 개념으로 우수 인재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이 장기 목표다. 이 사업은 연간 지원규모가 6325억원(7년간 총 4조4000억원 투입)으로 BK21과 WCU 사업을 합친 액수보다 배 가까이

이 크다. 글로벌 엑셀은 연구의 질적 성장과 국내 연구인력 육성을 위해 대학 연구와 관련한 거의 모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 탈락은 곧 연구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전남대의 경우 연평균 WCU 사업은 52억원을, BK21 사업은 70억원을 지원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엑셀 선정시 연간 240억원 정도가 배정되기 때문에, 만일 7년간 연구관련 예산을 받지 못한다면 국립대로서의 존망마저도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각종 평가에서의 탈락 가능성이 우려 수준을 넘어 현실화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데 있다. 전남대는 이미 지난 4월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제외돼 50억원의 예산을 받지 못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대부분 장학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업 탈락의 주원인은 총장직선제 폐지 수용 거부 때문이었다. 총장직선제 폐지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물론 9월로 예정된 구조개혁

대상 대학 선정에도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다. 직선제 폐지는 100점 만점에 5점이 배정돼 있고, 대부분의 평가 지표 값이 거의 격차가 없어 총점이 2~3점 차이가 나는 국립대 평가에서는 사업 선정 여부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탓이다. 전남대는 아직 직선제 폐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서 결국 구조개혁 대상 선정도 가시권에 있으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시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탈락은 장학금 감소를 비롯한 학습 환경 저하·정원감축, 우수 학생 수도권 이탈, 학교 경쟁력 약화, 취업률 하락 등의 악순환을 불러 대학의 추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는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 어는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도 위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많다"면서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전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28년까지 날릴 혈세 절반이면 제2순환로 1구간 매입비용 충분

광주시 2500억원 추정... 맥쿼리측 소송 방침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5.67km)에 대한 광주시의 '직접 매입' 여론이 높아지면서 매입 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 대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실시협약 중도해지를 통해 자체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매입 비용을 2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자 1816억원이 투입

돼 지난 2001년 1월 개통된 1구간에 대한 수입보장 협약기간 만료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다. 이 구간의 최소 운영수입보장률(MRG)은 85%다. 이를 감안, 오는 2028년까지의 운영비용 및 이자 등의 지출 요인과 통행료 수입 등의 수입 요인을 적용해 매입비를 산출할 경우 25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1구간의 경우 '적자 보전 협약'에 따라 지금까지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지원됐고, 향후 4880억원의 시민 혈세가 더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1구간의 통행료가 수년간 증가하지 않는 데다 앞으로 통행료 증가 요인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보전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광주시의 직접 매입이 지방 재정 부담을 덜고 시민 혈세투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 등도 광주시의 직접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매입비용

은 2500여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 매입이 추진될 경우 구체적인 금액을 재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광주시가 직접 매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12일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의 기각 결정과 관련,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시의 행정처분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직접 매입이 어려울 경우 제3자 인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최근 "시가 직접 매입하기 어려우면 제3자 인수 방법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 원서접수 : 8월 20일 ~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 원서접수 : 8월 6일 ~ 8월 20일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www.r-golf.com

천만원대의 회원권으로 4개의 골프장을 누려라!

록펠러 멀티 골프회원권

명문 골프 클럽 이제 마음 놓고 이용하십시오!
누구나 꿈꾸는 유명한 골프 클럽들을 하나의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골프회원권입니다.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에서는 명문 골프장과 제휴하여 이용혜택을 드리는 록펠러 골프클럽 창립회원을 300구좌 한정 모집합니다.

골드레이크 C.C.(퍼블릭) 18H | 무등산컨트리클럽 27H | 아크로컨트리클럽 27H | 푸른솔 골프클럽 27H

록펠러 멀티 골프회원 특별혜택

- 기명 1인 입회
- 골드레이크 C.C(퍼블릭), 무등산 C.C, 아크로 C.C, 푸른솔 골프클럽 각 골프장별 매월 주중 3회(일요일 1회 포함) 그린피(카트비 제외) 30% 할인
- 광장 골프존, 리얼 스크린골프존, 자이언트 골프존
- 각 스크린 골프장별 매월 5회 그린피 30% 할인
- 출리데이 인 광주 호텔 회원우대 특별할인가(스탠드룸 기준)
- 세계로 한방 병원 골프전문 클리닉, 한방진료, 입원 의료 혜택
- 미담 한의원 피부미용, 다이어트프로그램, 의료 혜택
- 통합 부킹 사이트 정회원 대우

미래에셋생명 공동개발한 신개념 골프회원권

- 입회기간 : 5년(단기 연장 또는 원금 반환)
- 입금방식 : 미래에셋생명 개인 전용계좌 직권설정가능(설정비용 수수료는 본인 부담)
- 보통금 예치기관 : 미래에셋생명
- 예금주 : 광주은행 032-107-085749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

※ 멀티회원권전담부서 운영(입회 1년 후 명의의 개서 가능)
미래에셋생명 자금관리, 원금보장

록펠러회원권거래소(주) | 가문의 062-351-0095 | 예문의 062-655-7799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9 1층